



“올 용병 투수? 빛 좋은 개살구”

로페즈 등 3~4명 외엔 기대 이하

2011시즌을 앞두고 역대 최강이라고 꼽히는 외국인 투수들이 각 팀에 자리 잡았다. 일부에서는 ‘투고타저’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투쟁을 열자 각 팀의 기대대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 투수는 KIA 로페즈, 두산 니퍼트(3승 방어율 1.23), 넥센 나이트(1승3패 방어율 2.27) 정도이다. LG 리즈도 1선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1승 3패 방어율 4.65로 기대에는 못미친다. 한화 데폴라는 승리 없이 3패, 방어율은 7.48이다. 롯데 코리 역시 1승2패에 방어율 4.1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 번째 시즌인 삼성 카도쿠라는 1승 2패 방어율 3.60으로 그나마 선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넥센 나이트는 한국에서 부쩍 야구가 성장한 선수다. 나머지 투수 가운데는 KIA 트레비스, SK 글로버 정도가 그나마 안정적이고, 롯데 사도스키는 30일에야 1군에 복귀한다.

SK 김성근 감독은 27일 “로페즈를 포함해 3~4명 정도를 빼면 이제 다른 외국인투수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2경기 상대하면 (타자들이) 다 공략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KIA 조범현 감독도 “국내 야수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더 성장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투수가 5년 전에만 왔어도 좋은 성적을 올렸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ikh

재활 끝!…사도스키 30일 출격



허리 부상으로 개막 후 재 활훈련만 해오던 롯데 외국인 투수 라이언 사도스키(29·사진)가 마침내 1군에 복귀한다. 롯데 양승호 감독은 27일 LG전을 앞두고 “사도스키는 30일 광주 KIA전에 선발등판한다”고 밝혔다.

사도스키는 27일 상동구장에서 열린 두산 2군전에 선발등판해 3이닝 동안 3안타(1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 31개에 최고구속은 141km. 평균 직구구속은 아직 136km 정도여서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다. 그러나 사도스키는 이날 투구 후 “허리에 통증이 없다. 여러 가지 던질 수 있는 구종들을 전체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혀 1군 경기에 등판해도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롯데는 그동안 브라이언 코리, 송승준, 장원준, 이재곤 등 4명의 고정선발에다 이응훈과 이남 선발등판한 김수완 등으로 5선발을 꾸려왔다. 사도스키의 합류가 늦어지면 마무리투수로 정격은 고원준을 임시 선발로 돌려려고 했던 계획도 일단 보류됐다.

사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 숨은 기록 찾기

〈27일〉

- 삼성 차우찬 잠실 4연승(2010년 8월 28일 LG전 이후) 및 원정 8연승(2010년 6월 27일 목동 넥센전 이후)
- 두산 팀 1이닝 최다 폭투 타이(7회·3개)=종전 1983년 5월 3일 대전 롯데전 외 7차례
- 한화 2연속경기 영패 및 19연속이닝 무득점
- 한화 안승민 3연승 끝=2010년 9월17일 대전 롯데전 이후
- 넥센 이승엽 프로 통산 7번째 1700안타
- SK 김광현 광주 원정 6연승=2007년 5월 13일 광주에서 프로 데뷔 첫 승 이후, 9경기 6승 무패
- 광주구장 2011시즌 주중경기 최다 관중=8618명

■ 엔트리 노트

〈27일〉

- 등록=박진만(SK) 김수완(롯데) 김다원(KIA) 심광호(LG)
- 말소=박준서(롯데) 윤성균(LG)

터졌다! 대포, 날렸다! 슬럼프



◀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27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와 홈경기에서 7회 3점홈런을 터뜨린 뒤 타구를 응시하고 있다.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 | AP 연합뉴스

앤서니의 추신수 스토리

캔자스시티전 4타수 2안타 4타점…3점포 작렬
악타감독 “투수들, 추신수 상대할 때 크게 경계”

클리블랜드가 27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전에서 9-4로 승리했을 때, 모처럼 추신수가 추신수답게 보였다. 추신수는 정말 큰일을 해냈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가 4-3으로 살얼을 리드를 해나가던 7회, 영양가 만점의 도망가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9회엔 알렉스 고든의 직선타구 때, 다이빙캐치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 이 플레이로 클리블랜드의 3연패도 끝났다. 캔자스시티전에서의 4타수 2안타 4타점이 추신수의 올시즌 터닝 포인트라 단정짓기는 이르다. 공격 측면에서 추신수의 기록은 예년 성적을 감안하면 평균을 밑돈다. 그렇기에 27일의 행태는 긍정적인 한걸음이다.

악타 감독은 “슬럼프를 탈출하려는 추신수를 봐서 좋았다”고 말했다. 경기 전, 악타는 추신수의 초반 성적이 걱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또 받았다. 28일까지 추신수 타율은 0.207이었다.

악타는 “타율이 전부는 아니다. 추신수는 동료들의 사기를 올리고, 타석에서 기여를 해준다. 시즌 끝날 무렵이면 제자리에 있

을 것이다. 아직 개막하고 3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계입은 많이 남았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타는 “그럼 추신수를 언제 걱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이에 악타는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추신수가 타율 0.200이라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캔자스시티전처럼 추신수가 원래의 의도대로 중심타선에서 기여를 해낸다면 말이다. 악타는 “추신수는 단지 빅리그에 몸담으면 따라오는 ‘적응’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신수의 존재감은 이제 더 이상 ‘놀라움(surprise)’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투수들은 추신수를 상대할 때, 자세가 달라진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악타는 평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추신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hidden secret)”였다.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랬던 1시즌이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진짜(legit)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즌이 필요하다. 확실해진대 상대 투수들은 추신수를 다르게 상대할 것이다. 이에 맞춰 추신수는 적응을 해야만 된다.” 악타의 말이다.

이 와중에 악타가 인상적으로 바라본 것은 초반 부진이 결코 추신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않은 대목이다. “추신수는 멋진 선수다. 팀 승리에만 관심을 둔다. 팀이 이기면 그도 기뻐한다. 물론 타율 0.300을 치고 싶을 것이고, 그 수준에 걸맞는 기록을 내고 싶겠지만 클리블랜드가 이기는 한, 추신수는 괜찮다.” MLB.com기자

추신수 올핸 별들의 잔치 뽐힐까?

MLB, 7월 1일까지 올스타 온라인 팬 투표

메이저리그 올스타 온라인 팬 투표가 27일(한국시간) 시작됐다. 추신수는 동료 그레디 사이즈모어, 마이클 브랜틀리와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 외야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제82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7월1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고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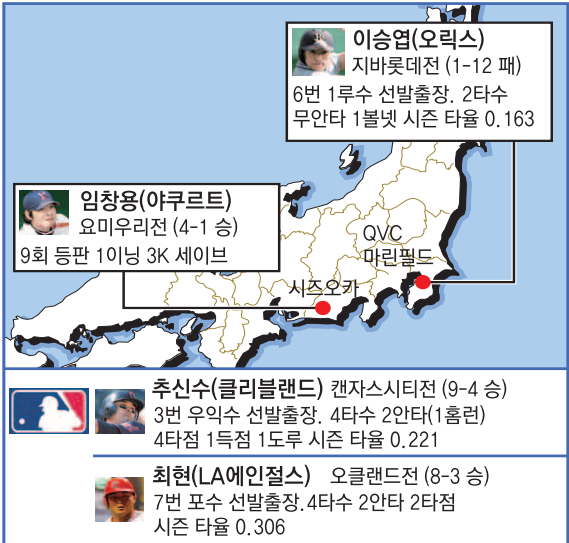
팬 투표는 7월1일까지 진행된다.

추신수는 2009년과 2010년 올스타 투표에 후보로 나섰지만 아쉽게 선발 출장 선수로 뽑히지 못했고 감독 추천 선수로 될 기회도 얻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추신수는 클리블랜드에서 2시즌 연속 타율 3할에 20홈런·20도루를 기록했다. 또 리그 외야수 중 보살 1위에 오르는 등 강건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미 인지도에서는 클리블랜드를 대표하는 스타 이미지를 구축한 추신수이기에 성적만 반짝주면 생애 첫 올스타전 출장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한 눈에 보는 해외파 활약도

〈27일〉



이승엽 무안타…김태균 첫 결장

오릭스 이승엽(35)이 27일 QVC마린필드에서 벌어진 지바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6번 1루수로 선발출장했으나 볼넷 하나만을 얻었을 뿐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시즌 타율도 0.163으로 더 떨어졌다. 전날 시즌 첫 결승 2루타를 때린 지바 롯데 김태균(29)은 결장했다. 시즌 처음이다. 전날 오른쪽 팔에 사구를 맞았기 때문이다. 김태균의 매니지먼트사 IB스포츠는 이날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르면 내일(28일)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엽은 2회 2사 후 첫 타석에선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끌라 출루했다. 그러나 1-5로 뒤진 4회와 선두타자로 나선 7회 연거푸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지바 롯데가 오릭스를 12-1로 완파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프로야구 첫 ‘형제호투’

한화 안영진-영명 형제 2군서 나란히 홀드

국내프로야구에서 사상 최초로 형제 투수가 나란히 같은 경기에 등판했다. 한화의 안영진(28)-영명(27) 형제다. 두 투수는 2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퓨처스



(2군) KIA전에서 각각 0.1이닝과 1.0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함께 홀드를 올렸다. 이 역시 최초다.

동생 안영명은 한화가 5-3으로 쫓긴 7회초 1사 1·2루서 선발 유창식을 구원해 두 타자를 좌익수 플라이와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아 추가 실점을 막고는 6-3으로 앞선 8회초 1사 2루서 김재현에게 볼을 건넨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형 안영진은 김재현이 이제우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4번째 투수로 등판해 정성교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임무를 완수했다. 형제들의 호투였다.

한살 터울이지만 프로 데뷔는 동생 안영명이 3년 빨랐다. 안영진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6년 한화에 입단했고, 안영명은 천안북일고를 졸업한 2003년 곧바로 한화에 입단했다. 나란히 우완투수인 형제는 천안남산초등학교~천안북중~천안북일고에서도 함께 야구를 했다. 다만 안영진은 아직까지 1군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는 반면 안영명은 2006년부터 1군 멤버로 자리 잡아 한화 마운드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어거 통증 때문에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한 안영명은 재할을 거쳐 2군에서 실전감각을 다듬는 중이다. 정재우 기자

LAA 최현, 오글랜드전 2안타 2타점 활약

LA 에인절스의 한국계 최현(23·미국령 핑크 공거)이 오글랜드와의 홈경기에서 7번 포수로 선발출장해 안타와 2루타로 2타점을 쓸어 담았다. 최현은 3회 1타점 중전적시타를 쳐냈고, 5회 2사 1루에서도 우익수 쪽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306으로 올랐다.

KBO-롯데카드, 4월부터 월간 MVP 선정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올시즌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인 롯데카드가 4월부터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월간 MVP를 선정하기로 했다. 9월까지 매달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명을 선정해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을 준다.

KBO-한국교총, 교원복지 등 업무 협약

KBO와 한국교총은 27일 KBO 7층 기자회견에서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교원복지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8개구단은 5월3일부터 교총 회원에 대해 일반석 입장료를 30% 할인한다.

두산, MLB 출신 우완투수 니에베 영입

두산이 베네수엘라 출신 우완투수 페르난도 니에베(29)를 영입했다. 올시즌 휴스턴 산하 트리플A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뛰었던 선수로 3경기에 나가 1승2패, 방어율 7.63을 기록중이었다. 메이저리그 통산 99경기에서 8승11패 방어율 4.61.